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요서 및 시나리오

단위프로그램

나는야, 국립공원 역사학자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지구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학생
참가인원	30명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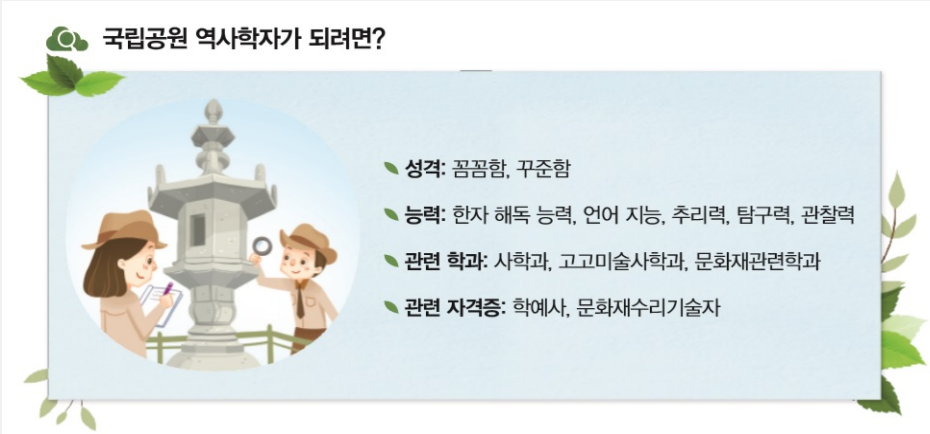
활동목표	• 국립공원의 역할과 국립공원에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다 • 국립공원의 자원조사직이 하는 일 중 문화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을 체험을 통해 알아보고 문화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준비물	• 국립공원 및 직업소개 교보재, 모니터링 관찰지
유의사항	• 야외활동에 맞는 복장 착용 • 사찰의 문화와 예절을 숙지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인사 – 참가대상 및 인원 확인 – 프로그램 지도자 및 운영자 소개 – 국립공원 소개 및 프로그램 일정 안내 –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안내 – 반별 모둠나누기(4~5인으로 모둠을 구성한다)	15분
전개	• 국립공원의 역사학자에 대하여 알아보기 – 역사학자가 되려면? – 국립공원의 역사학자가 하는 일 – 문화자원을 지키는 국립공원의 역할 • 증심사의 역사와 문화 설명 – 증심사의 특징 및 역사 – 증심사의 지방문화재 및 보물 설명 – 사찰의 구전문화(설화 등) 설명 • 역사학자 활동미션 부여 – 모둠 이름과 모둠장 선정 – 역사학자 모니터링 관찰지 완성 및 역사학자 미션 완료 상태 점검	90분
마무리	• 프로그램 정리 및 평가 – 활동내용 및 느낌 나누기(역사학자의 역할 및 업무 토론) • 설문지작성 및 마무리	15분

시나리오	도입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서 역사학자파트를 맡게 된 무등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해설사 ooo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같이 박수치며 인사) 다들 어느 학교에서 왔나요? (친근감가지기) 네~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날씨까지 화창한 날 무등산에서 모인 것도 인연일텐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약 2시간여 동안 무등산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증심지구의 사찰 그 중에서도 이 곳 증심사의 이 곳 저 곳을 둘러보면서 특별한 시간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국립공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립공원이란 무엇일까요? (대답유도) 국립공원이란 국토내의 대표적인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하면서 국민들이 영속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국립공원 제도가 1967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이 1호이고 이 곳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년 3월 4일 21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국립공원 유형별로 육상공원 18개(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 월출산, 무등산, 태백산), 해상공원이 2개(한려, 다도해), 해안공원 1개(태안해안), 사적공원 1개(경주)로 나뉩니다. 우리 국립공원공단이 국가사무인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자연자원 훼손 등의 불법행위 단속, 공원내 허가 및 협의 업무,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탐방문화 개선업무, 탐방객 안전관리 및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공원이용에 관한 계도·홍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국립공원과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그렇다면 국립공원에서 역사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모둠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한 반에 지금 20명의 학생들이 있으니깐 5명씩 4개 모둠을 만들어서 각 모둠별로 움직이면서 선생님한테 해설도 듣고 역사학자 모니터링 관찰지도 함께 만들어볼게요~

전개

○ 역사학자가 되려면?



자~그렇다면 국립 공원에서 역사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립공원 역사학자는 국립공원에 남아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관리 및 조사하고, 과거 국립공원 일대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를 연구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립공원지역이 가지는 역사적인 특수성을 찾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야생동식물들의 터전뿐만 아니라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도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 국립공원의 역사학자가 하는 일



○ 문화자원을 지키는 국립공원의 역할

역사학자는 국립공원이 자연경관, 동식물자원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 또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굵은 소나무에 주로 나타나는 나무껍질이 뜯겨나간 흔적을 통해 일제 강점기 때의 아픈 역사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전쟁(2차세계대전)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원을 수탈하였는데, 가정에서는 대표적으로 쌀과 쇠붙이를 수탈하였고, 자연 속에서는 전투기를 띄울 항공유를 대체하기 위해 굵은 소나무가 보이기만하면 나무껍질을 벗겨내어 송진을 채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 그리고 일제의 만행이 국립공원에서도 일어난 점을 알릴 필요가 있겠지요.

또한 국립공원 역사학자는 국립공원 내 국보, 보물 등 문화자원 현황을 종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립공원 역사 현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역사문화자원은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닌 실제 자연 속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폭우나, 폭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훼손될 수도 있고, 낙서나 도굴과 같은 인간에 의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입니다. 조사대장에 메모하거나 사진을 찍고 옛날사진과 비교하면서 달라진 점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table>
<tr><td></td><td></td></tr>
<tr><td>경주국립공원 불국사</td><td>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td></tr>
<tr><td></td><td></td></tr>
<tr><td>가야산국립공원 해인사 팔만대장경</td><td>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9층석탑</td></tr>
</table>

우리국토 전국 각지에 조상이 남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에서도 쉽게 역사문화자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불국사, 석굴암, 팔만대장경 역시 국립공원 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며, 불국사와 석굴암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증심사의 특징 및 역사



무등산을 대표하는 사찰 증심사는 광주 동구 운림동쪽에서 무등산 중머리재를 오르는 산길 왼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 불교조계종 제 21교구 송광사의 수말사이자 광주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사찰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증득하다는 뜻에 증심사.
조선시대에는 마음을 맑히다라는 뜻의 증심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860년 통일신라 말기 철감선사 도윤이 창건한 증심사는 이후 1094년 고려시대 혜조국사가 중건한 후 조선시대 김방이 중수하였습니다.
정유재란과 한국전쟁으로 많은 건물들이 소실되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쳐 현재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오백전, 비로전, 지장전, 취백루, 범종각, 산신각, 일주문, 사천왕문, 정목당, 행원당, 자인당 등 여러 전각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 증심사의 지방문화재 및 보물 설명

성보로는 보물 제131호인 증심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광주 제일의 기도성지인 오백전과 석조관세음보살 부도비 군등이 있으며 증심사 일원은 광주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 1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또 증심사에는 창건당시 건립되었던 3층석탑과 고려후기에 제작된 5층석탑 조선시대에 건립된 범자 7층석탑 등 시대를 달리하는 석탑 3개가 있습니다. 삼층석탑은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이고 석조보살입상은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사찰의 구전문화(설화 등) 설명

□ 일주문

- 사찰의 집입로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둥이 한 줄로 나란히 벌려있다는 것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일주문은 수미산 우주론에 입각해서 보면 향수해를 건너 수미산에 접하는 최하단부를 상징합니다.

일주문은 일반적으로 상체비만의 건축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건축은 기둥 같은 걸 땅에 박거나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저 주춧돌 위에 그랭이질이라고 해서 돌의 생김새에 맞춰 나무를 대충 다듬고 그 위에 세울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통 건축물은 모두다 허공에 떠있는 것이죠.

서양 건축가들은 주춧돌 위에 바로 기둥을 얹은 한옥을 보면 그 위태로운 구조에 매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고도의 기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무사했던 건물은 한옥구조로 된 사찰의 불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구요. 건물 자체가 땅에 붙박혀 있는 구조가 아니니 지진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를 보고 미국인들이 한옥을 다시 봤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 수미산우주론

- 불교교리에 의하면 부처님은 수미산에 계신다고 하고 수미산에는 우리 인간세계에서 부처님이 계시는 맨 위의 불국토까지 맨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28개의 하늘나라가 층층히 쌓여있는데 이것을 28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28천에는 아직 부처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거주를 하는데요. 사찰에서 법당 안에 부처님을 안치하기 위하여 마룻바닥보다 높게 설치한 불단을 수미산을 상징한 것이라 하여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28천중에서도 아래쪽 6천을 욕계라고 하고 가운데 18천을 색계, 위쪽 4천을 무색계라고 합니다. 불교의 28천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하늘나라는 인간세상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하늘나라인데 네 명의 왕 즉 사천왕이 지키는 하늘나라라고 해서 사왕천이라고 부릅니다. 사왕천은 수미산의 중턱에 있는데 인간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절을 방문하더라도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사천왕이 지키는 천왕문입니다. 이 천왕문은 사왕천을 시각적인 조형물로 형상화한것입니다.

□ 팔상도

- 석가모니불의 생애를 묘사한 불화입니다.

팔상도는 ①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상(兜率來儀相), ② 룸비니 동산에 내려와서 탄생하는 상(毘藍降生相), ③ 사문에 나가 세상을 관찰하는 상(四門遊觀相), ④ 성을 넘어가서 출가하는 상(踰城出家相), ⑤ 설산에서 수도하는 상(雪山修道相), ⑥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의 항복을 받는 상(樹下降魔相), ⑦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포교하는 상(鹿苑轉法相), ⑧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상(雙林涅槃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통 8폭을 각각 그려서 봉안하거나 2개씩 한 폭에 묶어 4폭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도솔내의상에서는 네 장면이 전개되는데 즉 탱화의 왼쪽에는 마야궁(摩耶宮)에서 마야 부인이 의자에 앉아 흰 코끼리를 탄 호명보살(護明菩薩)이 내려오는 꿈을 꾸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바로 그 위에 입태전(入胎殿)이 있어서 입태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그 위

에는 소구담이 도적으로 몰리어 죽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오른쪽에는 정반왕궁(淨飯王宮)이 있고 여기에는 왕과 왕비가 꿈꾼 내용을 바라문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비람강생상에서는 여섯 장면이 묘사됩니다. 첫째 마야 부인이 궁전을 떠나서 친정으로 가던 도중 룸비니 동산에서 무우수(無憂樹) 나뭇가지를 잡고 서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아기를 낳는 장면, 둘째 태어난 아기가 한 쪽 손은 하늘을, 한 쪽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외치는 장면, 셋째 제천(諸天)이 기뻐하면서 갖가지 보물을 공양하는 장면, 넷째 용왕(龍王)이 탄생불을 씻겨 주는 장면, 다섯째 왕궁으로 돌아오는 장면, 여섯째 아지타선인의 예언 장면 등으로 묘사됩니다.

사문유관상에서는 네 장면이 묘사됩니다. 태자가 동문으로 나가 노인의 늙은 모습을 보고 명상하는 장면, 남문으로 나가 병자를 보고 노고(老苦)를 느끼는 장면, 서문으로 나가 장례 행렬을 보고 죽음의 무상을 절감하는 모습, 북문으로 나가 수행하는 사문(沙門 : 출가한 중)의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는 장 등입니다.

유성출가상에서는 보통 세 장면이 묘사됩니다. 첫째 태자궁에서 시녀들이 취하여 잠자고 있는 모습, 둘째 태자가 말을 타고 성문을 뛰어넘는 모습, 셋째 마부 찬다카가 돌아와서 왕비와 태자비에게 태자의 옷을 바치면서 태자가 떠났음을 보고하자 왕비와 태자비가 태자의 소재를 묻는 장면 등입니다.

설산수도상에서는 보통 여섯 장면이 묘사됩니다. 첫째 태자가 삭발하고 사문의 옷으로 갈아입는 장면, 둘째 찬다카가 돌아가는 장면, 셋째 정반왕이 교진여 등을 보내어 태자에게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는 장면, 넷째 환궁을 거절하자 양식을 실어 보내는 장면, 다섯째 목녀(牧女)가 우유를 석가에게 바치는 장면, 여섯째 모든 스승을 찾는 모습 등입니다.

수하항마상에서는 네 장면이 묘사됩니다. 첫째 마왕 파순이 마녀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는 장면, 둘째 마왕의 무리가 코끼리를 타고 위협하는 장면, 셋째 마왕이 80억의 무리를 모아 부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장면, 넷째 마왕의 항복을 받아 성도하는 장면입니다.

녹야전법상에는 네 장면이 묘사됩니다. 대개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단에는 석가삼존불이 설법하는 모습입니다.
하단에는 교진여 등의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하는 모습, 기원정사(祇園精舍 : 中印度舍衛城 남쪽에 있던, 석가와 그 제자를 위해 세운 절)를 건립하는 장면, 흙장난을 하던 아이들이 흙을 쌀로 생각하고 부처님께 보시하자 탑으로 바뀌는 장면 등입니다.

쌍림열반상은 보통 세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첫째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하는 모습, 둘째 금관에 입관된 부처님이 가섭의 문안을 받고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는 모습, 셋째 다비하여 사리가 나오자 8대왕이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는 장면과 바라문이 이를 중재하는 모습 등입니다.

팔상도에는 화폭의 각 장면마다 내용의 제목을 적어 놓아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열반을 묘사한 탱화를 많이 봉안하는 데 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부처님의 전 생애를 모두 묘사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현전하는 탱화 중 중요한 것으로는 통도사·쌍계사·운흥사(雲興寺)·개심사

(開心寺)·선암사·송광사·해인사의 팔상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 역사학자 모니터링 관찰지 완성 및 역사학자 미션 완료 상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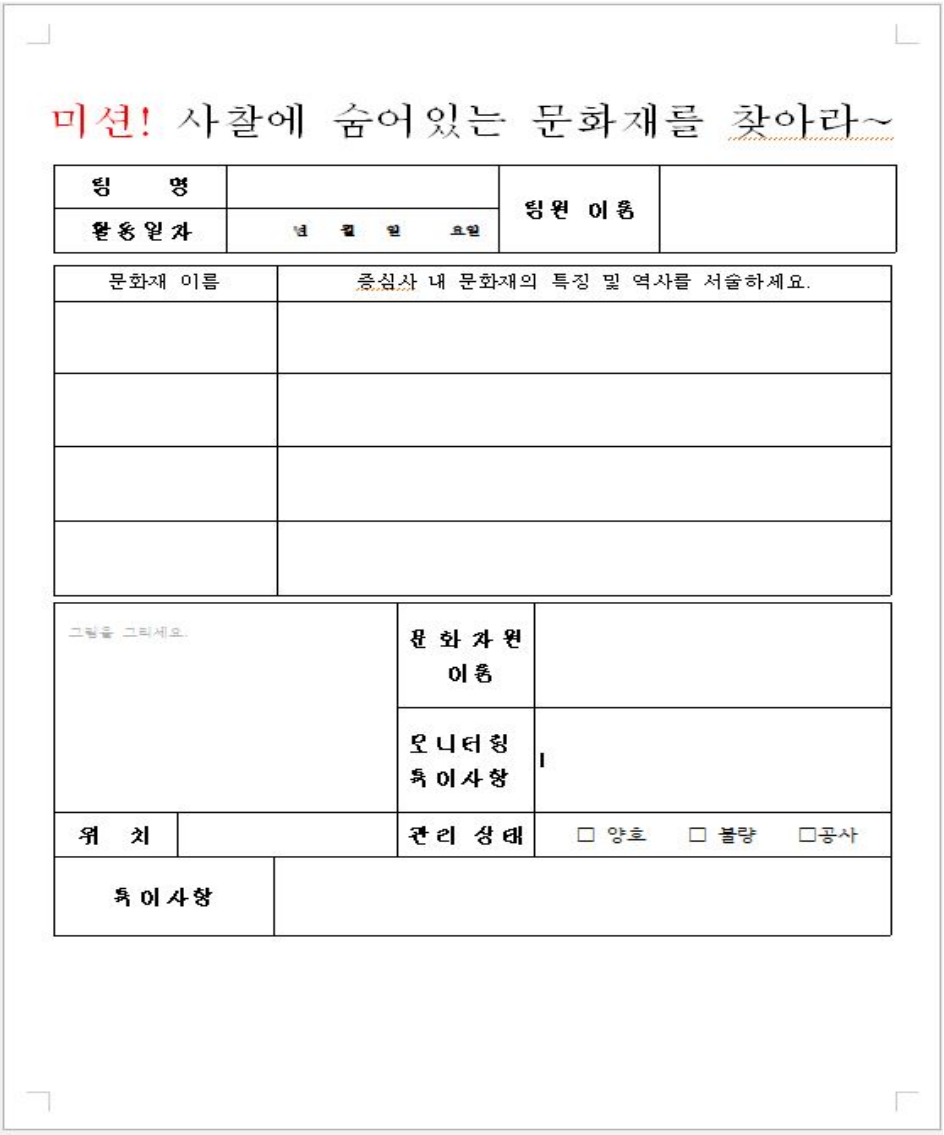
<table>
<tr><td></td><td></td></tr>
<tr><td>역사학자 모니터링1</td><td>역사학자 모니터링2</td></tr>
<tr><td></td><td></td></tr>
<tr><td>역사학자 모니터링3</td><td>활동내용 및 느낌 나누기</td></tr>
</table>

자 이제 증심사와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구요~
이제 이 모니터링 관찰지를 가지고 경내를 돌아다니면서 역사문화자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에는 어떤 역사문화자원이 있을까요? 국립공원 역사문화자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역사학자가 되어 문화자원 모니터링 미션을 수행해 봅시다. 자원을 찾은 후 모니터링 관찰지에 기록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는거 잊지 마세요~다들 자신있죠?

자 이제 다들 끝났으면 앞으로 모여주세요~
각 모둠별로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서로 서로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경청해주세요~

(활동내용 및 느낌 나누기 - 역사학자의 역할 및 업무 토론)



미션! 사찰에 숨어있는 문화재를 찾아라~

팀 명		팀원 이름	
활동일자	년 월 일 요일		

문화재 이름	증심사 내 문화재의 특징 및 역사를 서술하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문화재원 이름	
	모니터링 특이사항	
위 치	관리 상태	□ 양호 □ 불량 □공사
특이사항		

마무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국립공원에 역사학자가 되어서 활동을 해봤는데 느낌이 어때요?(느낌 공유)

네~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학생들 이 곳 증심사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한가득 담아가시구요 공부에 지칠 때면 언제든지 무등산으로 와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갔으면 합니다. 무등산은 여러분을 어머니의 품처럼 항상 기다리고 반겨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국립공원, 무등산, 또 역사학자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국립공원을 아끼고 지키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과 무등산에서 다시 한 번 보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의 자연환경해설사 ooo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